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만화도 읽어봤는데,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책은 대원씨아이 슬램덩크 완전판으로 읽었습니다.

영화 리뷰처럼 토막글 형식으로 적어봤습니다.
영화 리뷰 링크는 아래 남깁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입니다. 한국 개봉일...

blog.naver.com

0.
다 보는 데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쉬운 건 딱 하나.
이걸 중·고등학생 때 봤으면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1.
영화를 먼저 보고 만화를 나중에 보는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만화가 음성지원이 됩니다.
하이라이트 장면마다 영화 OST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좋더라고요.

2.
만화나 영화는 몰라도 패러디는 아는 사람인데, 영화 볼 때는 떠올리지 못했던 만화 명장면, 파생 밈 및 패러디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농구가 하고 싶어요, 왼손은 거들 뿐 등등.
이건 이 만화가 얼마나 파급력 있는 만화였는지를 반증하겠지요.

3.

만화 보기 전까지는 송태섭 주연인 영화가 위화감이 없었는데, 확실히 영화를 보고 나니 좀 느껴졌습니다.
원작 팬이라면 영화 보는 내내 '그래서 백호는 언제 나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화에서 강백호는 주인공인 만큼, 그 비중과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4.

조연의 스토리가 궁금하고, 정감도 가는 게 외전이나 2차 창작 만들기 참 좋은 만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게 말하면 떡밥만 남겨 놓고 회수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독자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거
겠죠.

등장인물이 주·조연 할 것 없이 하나하나 개성 있고 매력적인 게 참 재미있습니다.
묘하게 <원피스> 느낌도 나고요.
한 명 한 명 등장하는 게 마치 <원피스> 초반부 동료가 한 명씩 늘어나는 느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5.

제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그런지, 소년 만화를 소년 만화로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만화를 보면서 관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도부 주장은 강백호가 유도가 아닌 농구에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가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까지 생각해 볼까요?
팀 경기도 아니고 채소연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 같은 노력을 들이면 백호는 농구보다 유도로 전국구
제패하는 게 훨씬 빨랐을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채치수가 초반에 거절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백호 재능 낭비 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6.

만화에서 등장한 수많은 떡밥들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복산 엔딩은 좀 많이 갑작스럽습니다.
<아즈망가 대왕>으로 따지자면 1학년에서 끝난 느낌?
최소한 결승까지 가거나, 복산 엔딩이더라도 뭔가 그다음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외압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작가가 더 이상 만화를 그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이미 떡밥은 던져둔 상태에서, 중간에 결말에 대한 기존 계획을 수정했을 수도 있고요.

백호의 1학년 2학기와 2, 3학년이 궁금합니다.

<아즈망가 대왕>처럼 3학년까지 이야기 전개하고 졸업하는 엔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욕심이겠지요.
그렇기에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만화를 읽기 시작해 같은 결말을 접하고 같은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이 이번 영화
에 더더욱 감동하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

만화를 읽고 난 뒤, '열심히 살아야지', '내 영광의 시대가 지금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호의 농구가 나에게겐 무엇일까?', '코딩? 공부?', '아직 접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농구를 접하
기 전 양아치 백호인가?'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농구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백호의 재능을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드러날 정도로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농구 좋아하는 입장에서 농구를 위해 필요한 백호의 키와 덩치와 재능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래봤자 농구
이기도 합니다.

사실 강백호와 주변 인물 외 대다수 또래 학생들은 농구에 관심이 없거나 있다 해도 농구를 적당히 취미로 즐기고 싶
어 하고, 농구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하고,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길 겁니다.

농구 천재 백호도 학교에선 수업 안 듣고 잠만 자는 운동부, 양아치 정도 이미지에 지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백호는 의도치 않았겠으나 농구 재능 하나로 나머지 안 좋은 이미지를 조명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던 바둑 기사 조치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구 모르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 대다수에게 농구는 그저 운동 중 하나일 뿐이거나 안중에도 없는 것인데, 백호 같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청춘이고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백호처럼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고, 운도 따라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시작부터 농구 스타트 멤버나 벤치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좌절한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내 재능을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에 쓸 필요는 없지만, 보통 좋은 성과를 낼수록 다른 약점도 감춰지고 전반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고, 각기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 재능으로 어디까지 성장하여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게 목표를 잡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눈길이 가고 생각이 미치는 걸까요?

제가 특이한 사람이라 그쪽에 시선이 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만큼 작가가 모든 캐릭터에 서사를 매력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8.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백호를 보며, 역시 재능을 키우려면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혀봐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좋은 스터디 들어가거나 관련 분야 취직하고 좋은 사수 만나서 나보다 훨씬 잘 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깨지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전 <슬램덩크>처럼 근엄하고 멋진 캐릭터가 개그 장면에서는 중간중간 치비 캐릭터로 변하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걸 데포르메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내용 좋고 데포르메 잘 쓰는 만화 더 있으면 찾아보고 싶네요.

10.

지금도 그렇긴 한데, 특히나 예전엔 자기소개서 쓰거나 할 때 처음 도입부에서 무언가를 시작한 계기나 동기를 멋있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백호가 농구 시작한 이유는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애가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얼떨결에 좋아한다고 한 게 이어진 거죠.

전 이게 참 좋습니다.

다시 곱씹어 볼수록 현실감 있고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고요.

자소서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생각보다 별 이유 없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처: [MBC 특집] 권연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2009년 5월 17일 방송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찌다 했던 게 질리지 않았든, 좋았든, 뭐 다른 어떤 이유든 간에 계속 하다보니 이어지는 거지.

만약 극초반 소연이가 갑자기 농구하는 남자가 별로라고 말을 바꿨다면, 백호는 농구를 바로 그만 둘 수 있었을 겁니다.

만화 완결 시점에선 그렇지 않을 거고요.

백호는 이 시점에서 이미 농구가 너무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혀 버린 바스켓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언제 사귀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귀면 좋고, 아니면 그만', 결말부 가서는 '소연이고 뭐고 리바운드 하고 덩크 멋있게 해서 짜릿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백호 입장에서나 읽는 독자인 제 입장에서나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해요.

소연이가 어느 순간 비중, 무게감이 확 줄어서 소연이 친구와 소연이가 별반 다르지 않은 병풍으로 느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맥거핀 같다고 해야 하나.

현실에서도 이럴까 싶고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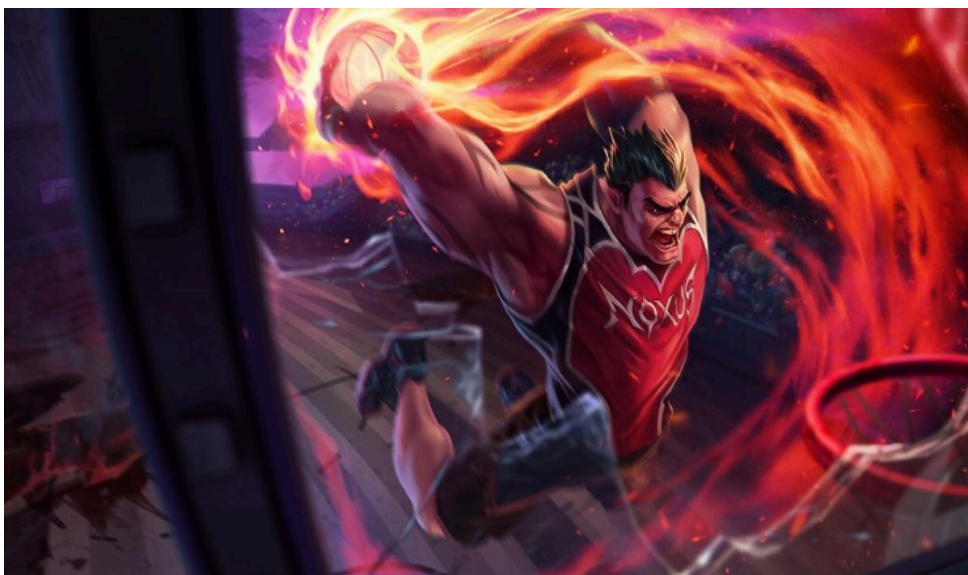
저는 소심한 리버스 강백호인가 봅니다.

평소에 칭찬 받으면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노력하지 않는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뭔가 마땅히 성과 낸 것도 없고 백호만큼 잘생기진 않았으니 소심한 리버스 언럭키 강백호입니다.

저는 강백호 이름 붙이려면 앞에 뭐가 되게 많이 붙네요.

12.



만화 보다가 덩크왕 다리우스 스킨 끼고 롤 하니까 캐리하더라고요.
역시 슬램덩크입니다.